

# 노마스크 여전...음식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 써야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미리 둘러보니

백화점·PC방·패스트푸드점 등  
코스크·텍스크...직원 제지도 없어  
망사·벨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  
지침 위반 업주 300만원이하 과태료  
신고에만 의존 ...단속 실효성 논란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에 있는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은 텍스크를 한채 쇼핑을 즐기고 있고(왼쪽), 동구의 한 PC방에서는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패스트푸드점.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비슷한 시각 동구 NC웨이브 백화점. 이른바 턱에만 마스크를 걸친 '텍스크'나 코를 내놓은 채 마스크를 쓴 '코스크' 상태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직원들의 제지도 없었다. 총장로 PC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친구 사이로 보이는 20대로 청년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한 칸씩 띄어 앉아 달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무색했다. 13일 0시부터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당, 백화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마스크 착용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미착용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입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텍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권유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경우 9개 중점관리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젊은층들이 즐겨 찾았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단속 여

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입장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착용한 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14개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시설이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아·미용실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등에서 허술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다가는 이용자 뿐 아니라 운영자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탈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집회·시위를 할때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망사마스크나 벨브형 마스크는 단속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을 써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역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불가 등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라고 안내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대화중인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를 꼭 가지 착용하세요'라고 안내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이 단속됐을 때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일거리가 하나 늘었다"고 푸념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보건당국의 마스크 단속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만 의존해 단속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어 실효성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총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총기 게임·음란물 검색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법원 판단은?

“게임 기간 짧고 음란사이트 가입한 적 없어”...항소심도 무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무술가'로 쓰고 총기를 가지고 살상하는 3인칭 슈팅게임을 즐겼던 기록이다. 음란물 검색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있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춘천에 있는 102보 총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무술가'를 장래 희망으로 기재하고 태권도를 배운 사실, 서바이벌 3인칭 슈팅 게임인 '프리파이어' 게임에 접속한 점,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교리에 맞지 않는 음란물 시청 사실을 제시하며 항소했다. 병역법(88조1항)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 16세인 2007년에 징계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되기 전인 초등학교

교 6학년 때 무술영화를 보고 진지한 고민 없이 희망을 '무술가'를 기재했을 뿐"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또 '집중'을 반대하는데 총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2-3년 전 1주일 정도 한 것 외에 없고 이후 삭제했는데 1주일 한 것만으로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란물 검색도 A씨가 끈 끈 관련된 강박적 증상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는 본인 진술과 다른 웹사이트 가입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한때 시청한 사실만으로 A씨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잇따라 광주·전남 149명...79명은 대체복무 결정

6월 말 이후 전국 1500여명 신청  
광주·전남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광주지방병무청과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 대체복무 신청자는 149명으로, 이들 중 79명은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왔으며 전국적으로 1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병무청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체복무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현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편입된 106명(10월 64명, 11월 42명 등)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